

“광주 주택시장 3년 뒤 가격하락·미분양, 급격한 조정 리스크”

■ 한은 광주전남본부 '주택매매시장 동향 및 리스크 점검' 보고서

2023년 8000호→2027년 3만5000호 대규모 입주 예정
 원리금 상환부담가중·가계대출 건전성 악화도 리스크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주택공급 및 시기 조정해야”

3년 뒤부터 대규모 주택 입주가 예정된 광주에서 가격하락 등 주택시장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5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박지섭 과장과 노민재 조사역의 ‘광주광역시 주택매매시장 동향 및 리스크 점검’ 조사연구보

고서에 따르면, 2025년 이후 대규모 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어 가격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조정될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광주시의 시기별 입주예정물량은 2023년 8000호, 2024년 7000호에서 2025년 3만호, 2026년 1만1000호, 2027년 3만5000호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특정 시점에 입주가 집중되면서 대구지역 등과 같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미분양물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내다봤다.

이와함께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과 가계대

출 건전성 악화로 광주지역 주택시장 관련 리스크로 꼽혔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과거 상승기 월평균 236억원에서 4상승기(2020년 11월~2022년 6월) 453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기타대출이자 부담도 확대(예금은행 기준 2억→37억원)된 가운데 청년층 가계대출이 늘어나 채무불이행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또 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2009년 60.2%에서 2020년 89.1%로 상승하고 있으며 저소득 차주나 20~40대를 대상으로 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 리스크 대응을 위해 ▲가계의 신중한 자금조달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및 공급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광주의 주택가격은 제4상승기를 지나고 있으며 주택공급 부족과 지역민 실수요 및 외지인 수요 증가, 차입부담 완화 및 주택가격 상승 기대 등이 상승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향후 주택가격은 단기적으로 상·하방 압력이 혼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될 전망이다이라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짚었다.

김재환기자

“하나회 쿠데타? 경찰은 의견도 못 냅니까?”

광주·전남경찰 ‘경찰국 신설’에 반발 거세

내부 게시판엔 ‘경찰 개혁 일방 추진’ 비판 글 잇따라 “말 잘 듣는 경찰 왜 건드렸나”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인근에 경찰국 신설 관련 근조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만들겠다는 것이냐, ‘정부가 일을 키웠다. ‘말 잘 듣는 경찰 건드려 왜 들볼처럼 일어나게 만들었나?’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이달 30일 오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현장 탐장(경위·경감) 회의’와 관련해 참석 규모 등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일선 경찰서장급 간부인 전국 총경들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둘러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돼 총경급 199명이 참여했다. 56명은 현장 참여, 133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광주·전남경찰청 소속 총경도 2명씩 총 4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맡은 분들이 임의로 자의적으로 한 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 대단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는가.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찰 수뇌부의 명백한 집회 금지 및 해산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계급 사회와 위계질서가 중요한 집단에서 그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라고도 했다.

정승호기자



시원하게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바닥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보건위기’ 지정된 원숭이두창...백신 부족 현실화

원숭이두창의 빠른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백신 부족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25일 의학계에 따르면 WHO는 지난 23일 2차 비상회의를 열고 원숭이두창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선언인 PHEIC를 선포했다.

아프리카 지역 풍토병이던 원숭이두창은 지난 5월6일 영국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비풍토병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당초 국제기구와 전문가들은 원숭이두창이 코로나19처럼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아니어서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

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발생 80일 만에 72개국에서 1만5000명 넘는 확진자를 냈고 여전히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초 63명 수준이었던 일평균 확진자 수는 최근 570명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산 억제를 위한 각국의 백신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원숭이두창 전용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기존 두창 백신으로 85% 정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신 도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

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집단 예방접종이 시작돼 접종 희망자들이 밀려들고 있다. 1만7000도스의 백신이 배포됐지만 사흘만에 온라인 예약이 마감됐다. 접종은 이달 30일이나 재개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바바리안 노르딕과 진네오스 1만 도스(5000명분)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도입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미 국내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확진자가 해외에서 추가로 유입될 수 있어 백신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동취재본부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